

2024년 미국 대선 전망,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- ◆ 미국 내 경합주 선호도 조사에서 7곳 중 5곳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
- ◆ 주요 경제 문제에서 바이든 보단 트럼프, 바이드노믹스 인기 미지근
- ◆ 현 정부의 입법 성과에도 대조되는 결과에 제조업 부흥 지속 여부가 중요

I. 개요

□ 대통령 선거 경합주 설문 개요

- 블룸버그 통신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경합주(swing states)에서 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, 7곳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(10.19)
 - 대선 전망 설문을 실시한 모닝 컨설팅에 따르면,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, 조지아, 노스캐롤라이나, 펜실베이니아, 위스콘신 등 다섯 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음.
 - 상기 경합주 중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다른 주의 경우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,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우세(3년 전 대비 14%이상 차)를 보이는 중
 - 현지 언론은 경합주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문제에 대한 신뢰 부족을 거론하고 있다며, 특히 여성 유권자, 생산직 근로자, 퇴직자가 '바이드노믹스(Bidenomics)'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주목

< 모닝컨설팅(Morning Consult) 여론조사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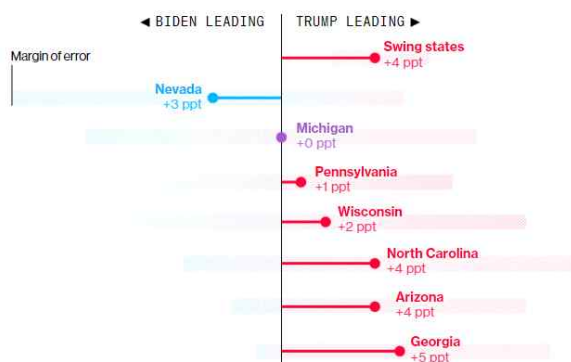
- Bloomberg News/Morning Consult 여론조사는 7개 경합 주에서 등록 유권자 5,023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
- 데이터는 성별, 연령, 인종, 결혼 여부, 주택 소유, 2020년 대통령 투표 및 주를 기준으로 경합주에 등록된 유권자의 대상 표본 가중치를 적용
- 오차범위는 7개 주 전체 +/-1%p, 애리조나, 조지아, 펜실베이니아 3%p, 미시간, 네바다, 노스캐롤라이나, 위스콘신 4% ([링크](#))

II. 주요 내용

□ 주요 의제별 유권자 선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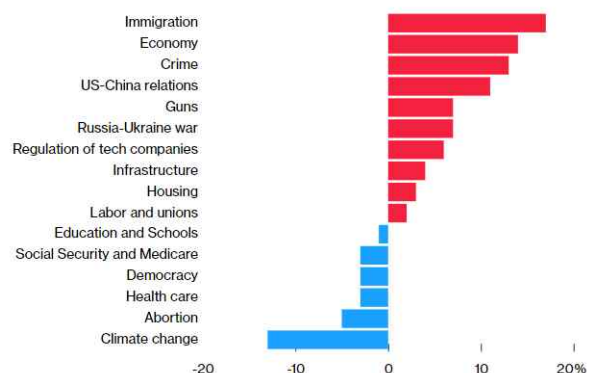
- 경합주 유권자들은 주요 경제 문제에서 바이든 보다 트럼프 신뢰
 - 경합주 유권자들은 대선에서 '경제'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, 유권자의 51%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
 - * 중도층(independent voters) 사이에서는 격차 심화(트럼프 22p 우세)
 - 특히 주식시장, 주택, 생필품 가격, 이자율, 세금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응답자가 트럼프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, 이민·인프라·노조 등 기타 경제 이슈에서도 트럼프 우세
 - 최근 중동 사태는 변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미중관계,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·외교 분야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더 높은 신뢰도 응답을 기록
- 바이든 정부의 다수 경제 정책 입법에도 바이든노믹스 인기는 미지근
 - 이번 조사에서 '바이든노믹스' 찬성 26%, 반대는 49%를 기록했으며, 경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찬성 14%, 반대 65%로 격차 심화
 -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통과에도 인프라 분야는 찬성 42%, 반대 38%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단, 헬스케어,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선호 뚜렷, 교외 지역의 여성 유권자 대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5% 이상 앞서고 있음.

<바이든 대 트럼프 경합주 설문결과>



[자료: 블룸버그/모닝컨설턴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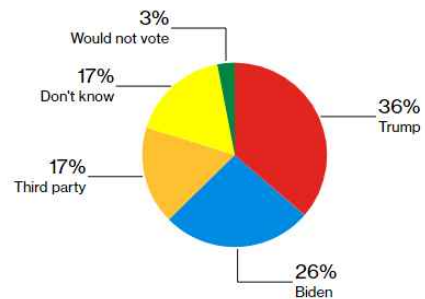
<주요 아젠다별 유권자 선호도>



[자료: 블룸버그/모닝컨설턴트]

III. 전망 및 시사점

- 현지 언론은 최근 낙관적인 고용시장 데이터 및 바이든 정부의 다수 경제 정책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조되는 여론 조사 결과에 주목
 - 경합주는 선거인단 제도에서 대통령 당선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 이번 양 후보 간 여론 조사 격차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큰 차이라는 분석
 - 설문을 총괄한 모닝컨설팅 부사장은 “경합주에서 두 배가 넘는 유권자가 바이든노믹스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지목했다”며, “바이든 정부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”고 언급
 - 이밖에 양 후보 이외에 제3자 후보 <대선 제3자 포함 선호도 결과> (로버트 케네디 주니어, 코넬 웨스트 등) 선거 출마 시, 이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 전망
 - * 네바다 주: 바이든 > 트럼프, 제3자 포함 시 바이든 < 트럼프(모두 3%, 오차범위 내)



[자료: 블룸버그/모닝컨설팅]

- FT, 대선 키워드로 떠오른 미국의 제조업 부흥 지속여부가 중요할 전망
 - FT는 보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액공제 및 보조금에 의해 주도되는 점, 정권 변화에 따른 추진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약점 지적
 - * '22년 8월 이후, 2,000억 달러, 10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발표(FT 리서치)
 - 아울러, 대내외 정치적, 경제적 상황 변화에 더해 중국과의 정치적 위협 증가에 따른 원자재 부족 등 공급망 위험 요소 증가는 미국의 '제조업 르네상스'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

[자료 : 현지 언론(블룸버그, 뉴욕타임즈, 파이낸셜타임즈 등) 및 KOTRA 보유자료 종합]